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일형 원장〉
−1958년 6월 27일 출생
−런던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에식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워릭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 자문관
−국제통화기금 중국사무소 소장
−現 제9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G20 국제협력대사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외경제정책연구 기관 되고자"

'질서 있는 시장경제'와 '창조경제'는 국내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회피할 수 없는 현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12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다자 및 쌍무적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주요국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런던정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에식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영국 워릭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자문관과 중국주재 수석대표 등 국제기구에서 24년간 활약해 왔다. 지난해 5월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셰르파*)로 임명된 그는 같은 해인 2013년 8월 제9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되어 크게는 미국 양적완화 문제와 같은 국제 거시금융 이슈, 한 · 중 FTA나 TPP와 같은 통상이슈, ODA 등의 국제협력이슈, 그리고 신흥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주요국 및 동북아 협력과 같은 지역 이슈를 다루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정책 분야의 석학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셰르파: 각국 정상을 대리해 G20 정상회의 의제 등을 조율하는 자리

이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져 버린 현시점에서 국내 시장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위 잘나가는 기업들은 해외로 투자의 시선을 돌리게 됨에 따라 국내 경제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를 만나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취임 당시 국제 금융위기 후 세계 경제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의 구조적 문제들과의 결합 등의 현상들을 대처하기 위한 연구 추진으로 바쁜 시간 보내

−원장께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G20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해 오시다 지난 2013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간의 간략한 소회 말씀 부탁 드립니다.

사실 제가 연구원장으로 취임하던 때가, 2008년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국제 금융위기가 일어나 대부분의 나라가 팽창정책과 경기부양 정책을 많이 활용한 후 점차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었으나 취임 당시까지도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책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한국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다 보니 단순한 경기 순환적인 문제보다도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들과의 결합 등의 현상들을 소화하고

대처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로 변화하는 시기,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인력의 공백 메우기 위해 매진

-취임하시고 약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연구원 조직의 재편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 G20의 국제협력대사로서의 활동은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연구원의 원장직을 수행하며 느낀 점은 IMF 재직시절과 연구원의 업무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IMF에서도 연구와 정책을 병행해서 수행했으며 우리 연구원에서 역시 연구에 기초해서 정부에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6~8개월간 점진적으로 필요 부분에서의 조직 개편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연구원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변화를 진행함에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제가 취임하기 2~3년 전부터 원내의 중견 박사들이 연구원을 많이 떠나는 현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일반 교수들과 비교해 5년 이상의 격차가 있는 은퇴 시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5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기간입니다. 본원의 중견 박사들은 교수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많기에 같은 조건이라면 학교에서 몇 년이라도 더 연구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학재단의 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원은 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대학의 교수와 같은 역량을 지닌 본원의 중견 박사들이 이번 연구원 이전과 관련해 많이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자녀 교육 등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견 박사중 70~80%가 이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우선 신임 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국내외 우수 학회 등을 참석해서 많은 교수분들을 만나 지속해서 본원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선 단기적으로 본원이 감당해야 할 많은 연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연구 진행에서 오는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부 국내 교수분들의 자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부족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 ▲시장의 요구에 맞는 필요 노동 인력 육성의 실패 ▲금융산업의 시장 지배 추세에 따른 금융화 현상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시장의 다양한 불규칙적인 현상 등이 소득불균형 문제의 주요 원인

-국제적으로도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본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국내를 포함한 대외적인 경제 관련 연구이기에 세계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비교되며,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게 됩니다. 실제 약 20개국의 소득 불균형 관련 수치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G20 국가의 평균 정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G20 자체에서도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하나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의 우수한 정책이 타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소득 불균형 문제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경쟁에 노출된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 ▲둘째 시장의 요구에 맞는 필요 노동 인력 육성의 실패 ▲셋째 금융산업의 시장 지배 추세에 따른 금융화 현상 ▲마지막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시장의 다양한 불규칙적인 현상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불규칙적인 현상은 시장이 독점 심화와 함께 완전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것이 문제 되기 시작한 것은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시장이 원인이라고 할까요. 만약 경제 활동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나 가계는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받아야 하나 현재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특이 사항의 하나가 가계의 소득은 줄고 있으나 기업들의 소득은 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한 기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이 아닌 미국을 포함해 G20 국가 대부분이 겪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업 소득의 상승이 대기업 중심으로만 점점 쏠리고 있고 중소기업과 가계는 점진적으로 밀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계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어느 정도는 설명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진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산단계에서 공급자는 중소기업들인데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들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대목입니다.

과거와 같은 저임금의 시대는 이미 종결, 향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경쟁력은 아이디어를 통한 '창조경제' 달성

-지난달 몬텍 싱 알루왈리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이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대담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경제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강세는 과거에도 지금도 사람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도 넓지 않으며 내수도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싼 임금으로 우리의 선배들은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올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고 봅니다. 이것이 맞물려서 우리 경제가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과거와 같이 저렴한 임금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향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경쟁력은 아이디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제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활용해 수출을 비롯해 내수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많은 분이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물어 오시는데 아이디어의 부가가치 창출을 한마디로 축소한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었듯이 앞으로 40년 역시 그래야 하는데 이후의 노동력은 과거와는 다른 '아이디어' 차원의 노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오는 노동력이 부가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시장환경 형성과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 활성화가 균형과 질서 속에서 정상화됨과 동시에 '창조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다시 정상화되어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성장은 매우 더딜 수 있으며 이에 '창조경제'를 덧붙여야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TFP(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가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시장경제'와 '창조경제'라는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PP와 한·중 FTA 등의 지속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 지역 및 대외적인 거시 금융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 중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셨던 연구가 있으시다면.

최근 본원에서 추진했던 연구들은 TPP와 한·중 FTA 등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계기관 및 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본원 연구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연구입니다. 신흥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에 '신흥지역 연구센터'가 최초로 본원에 설립됐으며 현재는 연구 영역을 구분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흥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시장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기업인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현황을 파악하는 일 등 역시 본원 연구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30%는 대외적인 거시 금융, 예를 들어 미국의 정상화와 일본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신흥국 성장의 둔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국내 환율 문제 등의 연구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0%는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이같은 연구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목표 실천과제로 '열정적 토론문화 기반 구축' 제시하고 연구원들과 공감대 형성 위해 노력...KINIS 제안방, 자율 스터디 모임, KIEP 사랑방, BK 모임 등 운영

–평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취임 후 조직 내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목표의 실천과제로 '열정적 토론문화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연구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내·외적인 현안의 민감성 유지 및 정보공유를 위해 원장실은 항상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연구자들과의 정보공유 및 심층 토론을 통해 대외활동 및 회의자료 등을 준비하여 연구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사후 관련 연구자와의 리브리핑 시간을 마련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와 열정적 토론문화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 의사소통 플랫폼을 다각화하여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구성원의 아이디어나 제안이 실질적인 연구결과물이나 연구원의 제도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원내 인터넷 망인 'KINIS 제안방' 활성화, 구성원들 간의 '자율 스터디 모임' 장려, 직원 간 교류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KIEP 사랑방' 및 'BK(Between KIEP) 모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KINIS 제안방은 전직원이 연구원의 제도 개선, 업무경험 공유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담당 부서에서는 즉각적인 피드백 등을 통해 활발한 제안을 유도하고 있으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 스터디 모임은 '차이나 스터디', '국제통상연구회', '연조회 지식발전 포럼' 등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학습 모임을 통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KIEP 사랑방은 직급 및 부서에 상관없이 전 구성원을 8~9명 정도의 사랑방 그룹으로 만들어 특정 주제나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BK 모임의 경우 평소에 교류가 없는 각 팀별로 부서간 모임을 개최하여 업무 협업 및 연구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경영회의 ▲연구운영회의 ▲세계경제 현안토론회의 등을 통해 연구자들 간의 브레인스토밍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 각 팀별로 개최하고 있는 'Tea time'에 직접 참석하여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기관 연찬회'를 통해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대외경제 전문 국책연구원으로 정부에 경쟁력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수준 높이고자

–앞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우리 연구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변화하는 세계 시장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부가가치화'라는 관점에서 본원의 경쟁력은 연구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상품화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국내 유일의 대외경제 담당의 국책연구원으로서 정부에게 올바른 정책을 제안할 수 없다면 우리 역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출발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연구원보다 앞서야만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정책도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며 지난 1년 동안 진행해 온 부분도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대외경제와 관련된 연구의 수준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합니다.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국민 평균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독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많은 단체가 공통으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며 이는 GDP와 가계 소득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져 버린 현시점에서 국내 시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국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소위 잘나가는 기업들은 해외로 투자의 시선을 돌리게 됨에 따라 국내 경제는 점점 침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수와 수출의 정상화를 통한 정상적 시장경제 회복이 요구되는 시기로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 평균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날처럼 국민 모두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내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각각을 함께했으면 합니다.

〈고동진 · 김민태 기자〉